

28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41.02	↓ 코스닥	1215.58
	(+25.99)		(-10.60)
↑ 금리 (20년)	3.530	↑ 환율 (원/달러)	1474.40
	(+0.038)		(+1.90)

최태원 상의 회장  
“AI시대 지정학적 한계  
韓日 경제통합 돌파”  
04



## 집값 안내리는데 추가 하락 기대 매수·매도자 줄다리기 아파트 거래 소강상태

### 부동산 현장 르포 양도세 증가유예 종료 D-1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 /성채리 인턴기자

“급매물 위주로 소화됐고, 이제는 거래가 뜸하다.”  
“매도자는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고,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가 유예 종료(5월 9일)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현장에선 매도자와 매수자 간 줄다리가 한창이다. 주요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거래가 소강상태다.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서다.  
실제 통계를 보면 3월까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강벨트 7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마포·광진구)는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 가운데 실제 거래된 비율인 매물 흡수율이 36.9%였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 지역(16.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급매 소화, 정상가격 매물만 남아  
막판 내놓는 매도인 ‘팔리면 좋고, 아니면 세금 내고 보유’ 분위기  
매도-매수자 간 눈높이 차이 커  
내달 초 연휴 이후 급매 가능성도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강남권 거래가 제한된 반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 셈이다.  
현장에선 한강벨트와 강남3구 모두 새롭게 나오는 매물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성동구 옥수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거래가 뜸하다”며 “내놓을 사람은 다 내놓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15억 원 미만 물건 위주로 싸게 나온 급매는 거래가 됐지만 정상가격 매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도 “4월은 거래가 거의 없었다”며 “기존에 내놔던 물건 가운데 급매만 조금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매물이 1000세대 단지에서 4~5개뿐”이라며 “내놔다가 다시 거두려는 집주인도 많다”고 했다.  
강남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강남구 도곡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일부 나왔고, 거래도 있었다”면서도 “급매로 나온 물건은 이미 대부분 소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60억5000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56억7500만원에, 51억5000만원이던 물건이 49억원 수준에서 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막판에 내놓는 매도인들은 ‘팔리면 좋고 아니면 세금 내고 보유하겠다’는 분위기다. 늦게 매물을 내놓으면서도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는 것은 결국 보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선 거래 실종의 핵심 원인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높이를 꼽는다. 용산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2억~3억원 낮춘 매물이 나오는데, 매도자는 충분히 낮췄다고 보지만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원한다”고 했다.  
1주택자의 움직임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용산·성동·강남 일대 중개업소들은 “보유세 때문에 팔아야겠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여기를 살 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보유세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시장은 ‘가격 줄다리기’ 국면이다. 매수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매도자는 호기를 크게 낮추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증가 유예 조건이 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매도 가능 기간 약 2~3주 연장 효과)으로 완화된 만큼 5월 초 연휴 이후 급매가 나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용산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5월 초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 매수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 삼성 구독형 콘텐츠 vs 모델사양 조정 애플

‘원가부담’ 스마트폰 대응 전략  
삼성전자, 남미 음원 플랫폼 제휴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 전면개편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란 이중 압박 속에서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꺼내 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독형 콘텐츠 결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애플은 일반 모델 사양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원가 부담 전략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구독형 콘텐츠 혜택을 접목해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남미에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제휴를 맺고 갤럭시 A57·A37·A17·A07 구매자에게 최대 3개월간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제휴는 메모리 등 부품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시장에서 수익성 방어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지 주력 제품군인 A시리즈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경험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갤럭시 스마트폰 고객을 위해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자급제 플래그십 모델 구매 고객 5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

로 시장 호응을 확인한 가운데 3년형 상품을 추가하고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단순 판매를 넘어 관리와 구독 영역으로 스마트폰 경험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아울러 원가 부담 대응과 상품성 강화를 위한 제품 전략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보급형 갤럭시A57에 플렉시블 OLED를 적용했다. 전작인 A56에는 리지드 OLED를 사용했으나 제조원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와 CSOT 두 곳에서 A57용 플렉시블 OLED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

## 통신3사, AI 들고 동남아 시장 ‘재도전’

SKT, 베트남 현지서 AIDC 구축  
KT, 대만·베트남 AX 사업 확장  
LG U+, 말레이 기업 협력할 듯  
과거 동남아 시장에서 이동통신망 사업으로 한계를 겪었던 통신3사가 이번엔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시장에 재도전한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인공지능 전환(AX), AI 고객지원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무기로 사업 실행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베트남에서 현지 에너지 자원과 연계한 AIDC 구축한다. SK이노베이션이 추진 중인 권관 LNG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1500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조성하고 이를 데이터센터 가동

전력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전력과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에너지 연계형 AI 인프라 모델인 셈이다.  
KT는 동남아에서 국가 단위 AX 사업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국영기업 비엠텔 그룹과 국가 범용 AI 언어모델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의료·국방·미디어 분야 맞춤형 AI 솔루션 확산도 추진한다. 대만에서는 최대 케이블 방송 사업자 KBRO와 AI 스마트홈·미디어 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하며 플랫폼 사업을 확대한다.  
LG 유플러스는 올해부터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를 앞세워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MWC2026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도이치텔레콤과 함께 AI 기반 고객지원 서비스 기

술을 선보인 바 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 콤과 협력 가능성이 거론됐고, 인도네시아와 중동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과거 동남아 시장은 현지 통신망 구축과 사업권 확보 부담에 부딪히며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AI 사업 구조는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파수나 가입자 기반 없이도 전력·부지·운영 역량이 핵심 요소여서다. 수익 모델 역시 요금제가 아닌 데이터센터 임대, GPU 서비스, 클라우드, AI 솔루션 공급 등 B2B 계약 중심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맞물린 시장으로 평가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李, “교권-학생인권 제로섬 아냐...교권 보호 강화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추경호, 선거캠프 명예선대위원장에 김문수 위촉 /사진 뉴스

▲김용 “공관위 결정 받아들일 것...현실 정치인으로 계속 정치하겠다”  
▲이진숙 “민주당 확장 막아야...당이 원하면 어 디로든 가겠다”

▲‘친한’ 박정하 “국민의 분노 대상은 장동혁...지선서 응징 받을까 걱정돼”  
▲장예찬 “한동훈은 지지율 빠질 일만...내가 무 소속해봐 안다”